

어휘형성과정과 제약: 음운적 제약¹⁾

안 상 철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국어 파생어 형성에 수반되는 음운현상이나 파생어 형성에 부과되는 음운적 제약을 살펴보는 데 있다. 국어 조어법 상의 파생어형성과정은 이미 통시적인 면에서나 공시적인 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공시적인 면에서도 통사적, 의미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형태적인 요소가 음운적인 요소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파생의 유형별로 어떠한 음운적 해석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²⁾

2. 파생의 유형

파생어 형성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우선 가장 흔한 형태가 접사(affix)에 의한 파생이다. 이 유형은 어느 언어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파생 방법으로 접두사(prefix)에 의한 파생, 접미사(suffix)에 의한 파생, 그리고 드물게 접요사(infix)에 의한 파생등으로 나누어 진다. 특히 국어에 있어서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 대부분을 이루며 접두사에 의한 파생은 그 예가 적고, 엄밀한 의미에서 접요사에 의한 파생은 그 예를 찾기 힘들다. (예를 들어 [헛][소리]의 경우, 이를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형성으로 보지 않고 합성어 [[허]ㅅ[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접미사에 의한 (순수한) 파생과정만을 다루기로 한다.

두번째 유형은 소위 '영접사 파생(zero derivation)'으로 이는 가시적인 접사의 첨가 없이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과정을 말한다.³⁾ 예를 들어 명사 '잘못'이 '그는 버스를 잘못 탔다'에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운교체(mutation)에 의한 파생은 단어 내부의 자음이나 모음을 교

1) 이 글은 통사, 의미적 현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어휘형성과정의 제약에 대한 연구 중 일부이다.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2) 파생(derivation)과 굴절(inflexion)에 대한 구분은 Bauer(1983), Scalise(1984), Spencer(1991)등을 참조하기 바람.

3) 영접사 파생은 conversion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영어에 대한 예는 Marchand(1968), Kiparsky(1982)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채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breath[breθ]에서 breathe[bri: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국어의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 등과 관련된 파생어 형성이 아주 생산적이다. 즉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줄줄/줄줄, 줄줄/줄줄, 출출/출출 등의 중첩(reduplication)에 의한 의성, 의태어는 자음 또는 모음을 적절히 교체함으로써 필요한 음성 상징을 하는 단어들이다.⁴⁾

이제 까지 예시된 파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가. 접사파생(affixation)
 - ㄱ. 접두사 파생(prefixation)
 - ㄴ. 접미사 파생(suffixation)
- 나. 영접사 파생(zero derivation)
- 다. 음운교체에 의한 파생(mutation)
 - ㄱ. 자음교체
 - ㄴ. 모음교체

3. 접사파생과 음운현상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 대로 이 글의 주요 대상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인데 그 중에서도 공식적으로나 통시적으로 합성어의 구분이 애매한 것을 제외한 생산적인(productive) 파생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음, -기'에 의한 명사 파생, '-이, -히, -리, -기'등에 의한 사역/수동 파생, '-이, -히, 게'등에 의한 부사 파생등을 음운론적 관점에서 관찰해 보고자 한다.

3.1. 명사파생: -이, -음, -기

3.1.1. 형태, 음운적 비교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접사는 '-이, -음, -기'를 들 수 있다. 즉 이 명사화소(nominalizer)로 불리는 이 접사들은 이미 임흥빈(1974), 심재기(1982)등에 의해서 그 통사적, 의미적 속성이 분석되었다. 즉 심재기(1982:330-331)에서 '-음'은 '-기'에 비해 명사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⁵⁾ 이 명사성과 동사성에 대한 기준은 최근의 문법이론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기준으로 명사는 [+N, -V]로, 동사는 반대로 [-N, +V]로 나타내진다. 따라서 형용사의 경우 명사성과 동사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N, +V]로 나타내기도 한다.⁶⁾ 이러한 관점은 언어

4) 송철의(1989:239)에서는 이를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적변화'가 용어 자체로 영접사파생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즉 표면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음운교체'에 의한 파생으로 부른다.

5) 심재기(1982)에서는 [+결정성], [+실체성]의 기준을 두고 있다.

6) 영어의 전치사 경우 [-N, -V]로 표기되어 명사성과 동사성 모두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

4 안 상 철

- (5) *같이 --- 논같이
 *건이 --- 발건이
 *넘이 --- 해넘이
 *말이 --- 물말이
 *밀이 --- 때밀이
 *반이 --- 물반이
 *볶이 --- 떡볶이
 *살이 --- 타향살이
 *쌀이 --- 쌀쌀이
 *씻이 --- 책씻이
 *앗이 --- 품앗이

이러한 예는 합성어 형성이 끝난 뒤 명사파생이 이어진다는 Kiparsky(1982)등의 어휘 음운론(Lexical Phonology)에서 채택하였던 '단계유순(level ordering)' '가설'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안상철 1985), 어휘형성이 문법구조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Shibatani & Kageyama(1988)의 통사부이후 합성(postsyntactic compounding)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4)에서 본 것과 같은 모음 충돌회피 현상은 수동/사역 어미가 붙은 복합동사의 '-이'에 의한 명사파생이 불가능한 점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송철의 1989) 즉 '-이, -히, -기' 등의 수동/사역 어미가 모두 모음으로 끝나므로 또 다른 모음 '-이'가 이어 지지 않는다.

(6) *ROOT] X V]_{caus/pass} i]N

즉 명사화 접미사 '-이'는 어느 경우에도 모음 뒤에서는 쓰일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한편 '갈비구이, 냉마주이' 등의 예들은 일견 이러한 제약의 예외 처럼 보이나 '구이, 주이' 등의 어근이 '굽-, 줌-'임을 고려하면 '-이'가 '비-불규칙' 변화에 앞서 첨가된 것으로 쉽게 설명이 된다. 이러한 예는 특히 통시적인 현상에서는 아주 쉽게 발견된다. 즉 다음 (7가)의 예가 공시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7나)의 경우는 통시적인 파생현상이다.

(7) 가. 넓이, 길이, 깊이, 높이

나. 너비, 키, 추위, 더위, 두께, 무게, 부피

특히 '너비'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넓- > 념'의 변화에 보조를 맞춘 '너뵈 > 너비'의 변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송철의 1989:96) 또한 '두께, 무게'의 도출 역시 다음의 통시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8)	두겹-	무겹-	
	tuk'əp-i	mukəp-i	명사파생
	tuk'əw i	mukəw i	p -> w
	tuk'əø i	mukəø i	w -> ø
	tuk'e	muke	ə + i -> e

한편 공식적인 면에서 '-이'에 의한 파생은 구개음화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 즉 어휘규칙(lexical rule)인 ㄷ-구개음화의 영역은 명사파생, 사역/수동 파생, 격조사 첨가등에 골고루 퍼져 있다.(안상철 1985)

(9) ㄷ-구개음화 (영역: 명사파생, 사역/수동 파생, 격조사 첨가)

- 가. 가을걷이, 해돋이, 미닫이, 벼훑이
 나. 불-이-다, 훑-이-다
 다. 밭-이, 별-이

즉 ㄷ-구개음화는 합성어 형성과 무관하므로 [밭][이랑]의 경우 [바치랑]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ㄷ-구개음화는 속성상 어휘규칙이므로 어휘부내에서만 적용되어 단어 보다 큰 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예: 밭 이외의 *[patʃiɔy])

'-음'에 의한 명사 파생은 '-이'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음운적 제약은 없다. 따라서 이 접사에 의한 명사파생의 여부는 전적으로 통사, 의미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⁹⁾ 또한 이 접사가 '명사성'과 '동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음운적 형태만으로는 명사파생과 동명사 형성을 쉽게 구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파생명사와 동명사형이 서로 다른 형태적, 음운적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다음의 예에서 보듯 동명사의 형성에는 '-오/-우'의 선어말 어미가 첨가되어 파생명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기문 1978, 허웅 1975, 송철의 1989)

- (10) 가. 파생명사: 열-음 -> 어름
 열-음 -> 여름
 그리-음 -> 그림
 건-음 -> 거름

9) 송철의 (1989:108)에서는 '-음'이 '축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붙을 수 있으나 '색채, 미각, 후각'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붙을 수 없다는 관찰을 하고 있다.

색채: *붉음, *노람, *하얗

미각: *달음, *심, *짠, *뽕음

후각: *비림, *노림, *구림

축각: 미끄럼, 간지럼, 아픔

- 나. 동명사: 얼-오/우-음 -> 어름
 열-오/우-음 -> 여름
 그리-오/우-음 -> 그름
 건-오/우-음 -> 거름

한편 주변적인 점이기는 하나, 공시적으로 볼 때 음운상으로 '-음'에 의한 파생명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축약형의 가능 여부로 구분 되기도 한다. (주요 자료는 송철의(1989)에서 인용)

(11)		<파생명사>	<동명사>
가.	울-음	울음, *울	울음, 울
	얼-음	얼음, *얼	얼음, 얼
나.	싸우-음	싸움, 싸	싸움, *싸
다.	미끄럽-음	*미끄러움, 미끄럼	미끄러움, *미끄럼
	간지럽-음	*간지러움, 간지럼	간지러움, *간지럼

(11가)는 파생명사의 경우 어근말 ㄹ 뒤에서 접사의 '으-탈락'이 되지 않지만 동명사의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으-탈락'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11나, 다)의 경우 동명사의 축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의 규칙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2) i -> ø / 1 lv ___m lv

끝으로 '-기'에 의한 파생은 역시 특별한 음운적 제약이 없고 그 생산성 또한 가장 강하다. 그러나 이 접사가 같은 강한 동사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에 동명사를 만들어 낸다. 또한 사역/수동 파생등 다른 파생환경에 적용되는 음라우트 등의 음운규칙도 여기에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 그러나 '-기'가 비음 /ㄹ, ㄴ/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 붙어 파생명사나 동명사를 만들 때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 사역/수동의 '-기'와 구별이 된다. (안상철 1985)

- (13) 가. 안기 [안끼], 숨기 [숨끼], 감기 [감끼], 옮기 [옮끼]
 나. 안기다, 숨기다, 감기다, 옮기다

3.1.2. 저지현상

저지원칙(blocking principle)은 처음 Aronoff(19776)에 의해 제안되어 후에 Allen(1978)에 의해 일종의 여과기능(filtering function)을 갖는 것으로 공식화된 개념이다. Aronoff에 의하면 단어가 어휘목록에 수록될 때 유사한 항목이 이미 존재함으

10) 이에 대한 자료는 김완진 (1972), 송철의(1989), 안상철(1991)등 참조.

로써 저지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14) 어떤 단어의 형태가 단순히 다른 형태가 어휘항목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저지(blocking)라 한다.

영어의 예를 들면 X-ous 형태의 형용사로 부터 -ity가 붙은 추상명사가 생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어휘부에 파생되지 않은 추상명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15)	추상명사	X-ous	-ity	-ness
가.	----	curious	curiosity	curiousness
	----	various	variety	variousness
	----	specious	speciousity	speciousness
나.	glory	glorious	*gloriosity	gloriousness
	fury	furious	*furiousity	furiousness
	grace	gracious	*graciousity	graciousness

즉 (15가)의 경우에는 어기가 될 수 있는 미파생 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ity에 의한 추상명사의 파생이 허용된다. 그러나 (15나)에서는 하나 뿐인 추상명사의 자리가 이미 차 있으므로 -ity에 의한 유사한 어휘항목의 생성이 저지된다. 그러나 -ity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ness에 의한 명사파생은 대부분 허용된다.¹¹⁾

불어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유사한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²⁾

(16)	명사	형용사(-eux)	파생명사(-ité)
가.	----	curieux	curiosité
	----	précieux	préciosité
나.	gloire	glorieux	*gloriosité
	espace	spacieux	*spaciosité
	harmonie	harmonieux	*harmoniosité

한편 Kiparsky(1983)은 이를 '동의어 기피 원칙(Avoid Synonymy Principle)'로 부르고 있다.

11) 이와 반대의 경우로 humble에서 humility는 쉽게 생성되지만 ?humbleness는 잘 쓰이지 않는 예를 들 수 있다. (예: He has humility/?He has humbleness) 또한 virtue에서 virtuous, virtuosity는 쉽게 파생되지만 오히려 *virtuousness는 파생되지 못한다. luminous에서 luminosity는 파생되나 *luminousness는 쓰이지 않는 점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12) 이와 비슷하나 개념상 차이가 나는 저지규칙(blocking rule)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Scalise(1984) 참조.

- (17) 한 어휘규칙의 출력부는 이미 존재하는 어휘규칙과 동의적일 수 없다.
 (The output of a lexical rule may not be synonymous with an existing rule.)

예를 들어 '무엇을 (실제로) 훔치는 사람(someone who steals something)'의 의미로는 이미 thief가 있으므로 steal-er와 같은 단어가 파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base stealer의 경우는 '실제로 무엇을 훔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야구경기의 '도루자'를 나타낸다.

이제 국어의 경우를 보자. 우선 가장 명사성이 강한 '-이'에 의한 파생은 화석화되어 관용적으로 쓰이는 소수의 예가 있다.

(18) 가. (동사)

놀-	놀이	---	---
떨-	떨이	---	---
물-	물이	---	---
벌-	벌이	---	---
풀-	풀이	---	---
먹-	먹이	---	---
굽 ₁ -	구이	---	---
굽 ₂ -	굽이	---	---
나. (형용사)			
길-	길이	---	---
넓-	넓이	---	---
높-	높이	---	---
크-	(키)	---	크기
덥-	더위	---	---
춥-	추위	---	---

즉 (18가)의 경우처럼 /ㄹ/로 끝나는 몇개의 어기에 쓰이는 경우가 숫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다른 '먹이, 굽이'처럼 다른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붙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한 파생은 다른 접사에 의한 단어 생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 한편 (18나)의 경우는 '-이'가 공시적으로는 대부분 척도명사를 만드는 형용사와만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키'와 '크기'는 의미상 상충되지 않으므로 '동의어 기피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모두 생성된다. 한편 '덥-, 춥-'에서 '더위, 추위'가 파생되는데 이는 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의 예는 '-음'에 의한 명사파생에 의해서 다른 접사에 의한 파생이 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가. (동사)

건-	---	걸음	(건기)
꾸-	---	꿈	---
물-	---	물음	---
민-	---	민음	---
배우-	---	배움	---
돕-	---	도움	(돕기)
뛰-	---	뛰엄	(뛰기)
자-	---	잠	---
죽-	---	죽음	---
지-	---	짐	---
울-	---	울음	---
웃-	---	웃음	---
얼-	---	얼음	---

나. (형용사)

걸-	---	거름	---
게으르-	---	게으름	---
괴롭-	---	괴로움	---
기쁘-	---	기쁨	---
두렵-	---	두려움	---
미-	---	미움	---
반갑-	---	반가움	---
슬프-	---	슬픔	---
외롭-	---	외로움	---
즐겁-	---	즐거움	---

(19가)의 ‘건기, 돕기, 뛰기’ 등은 근래에 들어와 파생명사로 자주 쓰이게 되었는데 독립적으로 쓰이기 보다는 합성어로 주로 쓰이는 점에서 ‘걸음, 도움, 뛰엄’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20)의 예는 ‘-음’에 의한 통시적, 공시적 파생형이 공존하는 경우를 보이는 데 역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존할 수 있다.

(20)	-음 ₁	-음 ₂
죽-	죽점	죽음
얼-	얼음 ₁	얼음 ₂

끝으로 (21)에서는 ‘-기’에 의한 파생이 다른 접사의 파생을 저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21) 가. (동사)

달리-	---	---	달리기
던지-	---	---	던지기
듣-	---	---	듣기
쓰-	---	---	쓰기
외-	---	---	외기
읽-	---	---	읽기

나. (형용사)

크-	(키)	---	크기
밝-	---	---	밝기
굵-	---	---	굵기
굳-	---	---	굳기
세-	---	---	세기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저지현상은 파생어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제약으로 보이지만 순수한 음운현상이 아니고 통시적인 문체, 의미, 통사적인 문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¹³⁾

3.2. 사역/수동 파생: -이, -히, -리, -기, 등

3.2.1. 선행 연구

'-이, -히, -리, -기'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역/수동형 파생어미는 형태적 유사성 뿐 아니라, 동일한 통사-의미적 기능으로 인해 하나의 기저형에서 음운 규칙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 부터 있어 왔다.

우선 음운적인 도출가능성에 대하여 통시적으로는 이기문(1972:94)에 의해 *yi로부터 -hi등의 변이형이 도출되었다는 주장이 이미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시

13) 저지현상에 대한 비슷한 예는 다음의 도구를 나타내는 '-개, -계'의 경우에도 나타난다.(송철의 1989)

가. 가리-, 가리개	나. 빗-, *빗개	cf. 빗
깎-, 깎개	신-, *신개	신
날-, 날개	띠-, *띠개	띠
덮-, 덮개	되-, *되개	되
배-, 배개		
싸-, 싸개		
지우-, 지우개		
지-, 지개		
집-, 집개		

적인 분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음소 *ɣ를 기저형에 설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채택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김진우(1973)는 생성음운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ki/를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이로 부터 여러가지 변이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즉 다음과 같이 기저형 /ki/ 각 음운적 환경에 따라 -i나 -hi등으로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22) 가. 된소리가 아닌 파열음이나 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간말 자음 뒤에서는 -hi-

예: 닫히다, 밟히다

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말 자음뒤에서는 -ki-

예: 감기다

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뒤에서는 -i-

예: 보이다

즉 k는 음운적으로 h에 가까운 속성이 있으므로 기음화가 일어날 수 없는 (22나)의 경우에는 h를 k로 바꾸어 -ki-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22다)의 경우에는 모음간의 h가 탈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국어의 음운현상이므로 /hi/에서 /h/를 탈락시켜 -i-를 얻게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음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뚜렷한 음운적 동기 없이 h를 k로 바꾸는 조정규칙(adjustment rule)을 설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음운분석에서 가능한한 피해야하는 절대중화(absolute neutralization)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¹⁴⁾ 또한, 기저형이 아닌 h에서 도출된 k만이 이러한 현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의 힘을 가진 음운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안상철 1989:153-154)

박승윤(1982)의 경우에는 사역형 어미의 기저형을 -hi-로 설정하고 다른 형태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23) 가. h-탈락규칙

$h \rightarrow \emptyset / [+voice] (+) \text{ ____ } [-cons]$

예: /po-hi-ta/ \rightarrow [po-i-ta] 보이다

나. h-탈락규칙(소수의 예에 국한되는 규칙)

$h \rightarrow \emptyset / k + \text{ ____ }]_{caus}$

예: /cuk-hi-ta/ \rightarrow [cuk-i-ta] 죽이다

다. 연구개화(velarization)

$h \rightarrow k / \left\{ \begin{array}{l} \text{nasal} \\ s \end{array} \right\} (+) \text{ ____ }$

라. l-중첩(gemination)

$l \rightarrow ll / [+syll] (+) \text{ ____ } [+syll]$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iparsky (1973)참조.

즉, 박승윤(1982) 역시 김진우(1973)와 마찬가지로 모음간 ㅎ-탈락 현상이 흔히 일어나는 국어의 음운현상으로 보아 (23가)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도출하는데 'ㄱ'으로 끝나는 어근에도 '-이'가 나타나므로 (23나)의 규칙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 한편 '-기'로 나타나는 변이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23다)를 제시하며, '-리'가 항상 '-ㄹ' 뒤에 나타나는 데 착안하여 (23라)를 설정하였다.¹⁵⁾ 그러나 이 제안 역시 위에서 제시된 음운적 자연성 면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사역/수동형의 음운적 도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통사적인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히, -리, -기'는 별도의 파생 접미사로 분류하는 대신 어휘항목의 일부로 함께 사전에 수록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조의연 1986). 예를 들어 '먹(다)'와 '먹이(다)', '먹히(다)'를 모두 별도로 사전에 수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식으로 접미사를 어휘항목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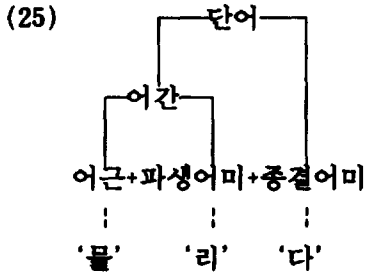
첫째, 사전에 수록되는 어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먹-' 하나만을 사전에 수록하고 '먹이다, 먹히다'를 규칙에 의해 도출하는 것 보다 어휘부에 배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둘째, 별도의 어휘항목으로 수록되는 경우 상혹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따로 밝혀 줄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먹다'는 '먹이다'와 '먹히다'에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는 불필요한 '연결규칙(via rules)'이 필요하게 되어 언어기술의 복잡성을 더하게 된다. 셋째, 생산성(productivity)면에서 수동/사역의 파생과정은 대단히 생산성이 높아 이를 규칙화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은 생산적인 형태규칙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넷째, 어린이나 외국인들의 국어습득과정에서 모든 사역/수동형을 그대로 외워서 습득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이를 규칙에 의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한 기계번역등의 국어의 전산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형태소를 따로 분리해서 이를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24) 개-가 사람-을 물-었-다
dog-SUBJ man-OBJ bite-PAST-Declative

-> 사람-이 개-에게 물-리-었-다
man-SUBJ dog-by bite-PASS-PAST-Declative

즉 밑줄 부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영어로 자동번역되는 경우 by와 PASS(수동형)의 일치관계가 만족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히, -리, -기' 등의 형태소는 어근에 붙어 어간을 파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이 도출과정은 김영석(1984)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몇가지로 나타나는 수동/사역형의 변이형을 음운적인 환경에 의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기저형에 대한 제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즉 영어의 경우에도 -ation, -tion, -ion 등의 서로 다른 변이형을 별도로 기저형을 설정하지 않고 각각의 형태가 같은 기능을 가진 이형태소(allomorphy)로 분석하고 음운환경에 따라 올바른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이형태규칙(allomorphy rules)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Scalise 1984:60-61)¹⁶⁾ 따라서 국어의 경우에도 특정한 기저형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음운규칙을 통해 자의적으로 다른 형태를 도출하는 대신 가장 분포가 넓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예측하는 이형태규칙을 설정하고 '-이'는 Kiparksy(1982)의 '여타조건(Elsewhere Condition)'에 의해서 이상의 이형태 규칙이 예측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기본형(default)으로 삼고자 한다.¹⁷⁾

3.2.2. 수동형 이형태소 (Passive Allomorphy)

수동형 이형태소는 사역형 이형태소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사역형 형태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통사적으로 수동형은 동사에만 첨가되지만 사역형은 형용사에도 첨가될 수 있다.(예: *늦-히-다 vs. 늦-추-다) 둘째, 분포상으로 사역형에 비해 나타나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즉, 사역형의 경우 '-이, -히, -리, -기' 뿐 아니라 '-우, -구, -추' 등의 형태가 별도로 나타나지만 수동형의 경우에는 '-이, -히, -리, -기'로 한정된다. 셋째, 안상철(198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동/사역형의 접미사는 음라우트, 경음화, ㄷ-구개음화, 모음융합 등의 음운규칙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넷째, 이상익(1980:135-1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상방언에서 수동형은 사역형과 서로 다른 성조형태를 나타낸다. 즉 '열다'의 경우 수동형은 LH의 성조로 나타나지만, 사역형은 HL의 형태를 취한다.¹⁸⁾

수동형 이형태소는 네가지의 유형만이 나타나므로 이를 예측하는 이형태소규칙은 다음과 같이 모두 셋이 필요하다. 우선, '-히'의 경우 기음화(aspiration) 현상이 일어

16) +ation -> $\left\{ \begin{array}{l} +ion \\ +tion \end{array} \right\} / X \left\{ \begin{array}{l} +coronal \\ -coronal \end{array} \right\}$ (여기에서 X α cor은 특정 라틴계열 어근)

17)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한정길(1984)에 기초한 것이다.

18) 이밖에 '뜨-이-우-다 -> 띄우다'와 같이 수동형과 사역형이 순서대로 붙어 같이 쓰이는 이중사역형(double causative)도 사역형과 수동형이 구분됨을 보여주는 예이다.(이상익 1980)

날 수 일어날 수 있는 평(plain) 파열음이나 파찰음 뒤에 첨가된다. (따라서 기음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된소리등은 기본값 -i-를 택하게 된다.)

(26) [PASS] → hi / $\begin{Bmatrix} -cont \\ -tense \end{Bmatrix}$ + _____

(예: 먹히다, 갠히다, 뽑히다, 굶히다, 부딪히다)

즉 뒤따르는 -hi와 합쳐져서 기음을 나타낼 수 있는 어간말 자음이 이 이형태소 규칙의 환경이 된다.

'-리'의 경우는 아주 규칙적이어서 '-르'로 끝나는 어간에 첨가된다. 따라서 이를 다음과 같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에 다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를 별도의 규칙을 통하지 않고 기본형(default)인 -i-로 부터 /-중첨규칙에 의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형태소 규칙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⁹⁾

(27) [PASS] → li / [+lateral] + _____

(예: 갈리다, 알리다, 날리다, 찼리다)

(예외: 끓이다)

한편 '-기'의 경우에는 분포상으로도 다른 것에 비해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일 뿐 아니라 나타나는 환경도 아주 이질적이어서 이형태소 규칙은 가장 복잡하게 설정된다. 즉 '-기'는 -m, -lm, -n, -nh와 같이 비음이나 기음을 생성할 수 없는 -s, 즉 'ㅅ' 뒤에서 쓰이므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²⁰⁾

(28) [PASS] → ki / $\left\{ \begin{Bmatrix} +nasal \\ +cons \\ +cont \end{Bmatrix} \right\}$

(예: 감기다, 삶기다, 안기다, 씻기다, (뺨)앗기다)

즉 이미 김진우(1973)등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환경에서 -ki-가 나타난다. 따라서 규칙의 적용환경이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예외를 허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즉 '(내)쫓기다, 찢기다, 뜯기다' 등의 예는 -hi-가 예측되는 환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ki-가 쓰이는 점이 예외적이다. 그러나 다음에 다룰 수동형의 경우와는 달리 이 예외는 오직 몇개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순한 예외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동형 접미사의 경우 위의 세가지 규칙에 의해 분포

19) '(악을) 달이다', '들이다'의 경우는 '(무게가) 달리다', '들리다'와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형태를 취하는 예로 보인다. 즉 일종의 동의어 기피원칙에 의한 변이형으로 본다.

20) 기음화와 'ㅅ'의 음성적 성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Iverson(1983) 참조.

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수 형태를 예측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가장 분포가 넓어 보편적인 '-이'가 선택된다. 이는 특수한 환경만을 예측하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기본값을 부여하는 Kiparsky(1982)등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보편(default) 여타조건(Elsewhere Condition)에 의한 것이다.²¹⁾

(29) [PASS] → i, elsewhere

(예: 끼이다, 놓이다, 까이다, 핥이다, 덮이다)

즉 (29)는 분포상으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이'가 위의 (24)-(26)의 특수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기본값으로 쓰이게 됨을 나타낸다.²²⁾

3.2.3. 사역형 이형태소 (Causative Allomorphy)

사역형 이형태소는 나타나는 종류도 더 다양하고 쓰이는 환경도 동사, 형용사 모두에 적용되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규칙설정에 있어서는 분포가 적은 특수 형태를 예측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첨가하는 여타조건을 사용해야함은 동일하다.

우선 사역형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뿐 아니라 '-우, -구, -추'까지 모두 7가지가 나타나므로 6개의 이형태 규칙이 필요할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와 '-추'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예가 불과 몇개에 지나지 않으므로 따로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이를 단순히 특수형태로 어휘부에 따로 수록하는 방법이 더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구'의 경우에는 (30)에서와 같이 4개의 예에 국한된다.

(30) 슬구다, 돌구다²³⁾, 일구다, 달구다

21) Elsewhere Condition (Kiparsky 1982:8)

Rules A, B in the same component apply disjunctively to a form ϕ if and only if

- (i) The structural description of A (the special rule) properly includes the structural description of B (the general rule).
- (ii) The result of applying A to ϕ is distinct from the result of applying B to ϕ .

In that case, A is applied first, and if it takes effect, then B is not applied.

22) 안상철(1989)에서는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처리한 바 있다.

[PASS] → i / $\left\{ \begin{array}{l} [-\text{cons}] \\ [-\text{cont}] \\ [+tense] \end{array} \right\}$ _____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음운환경의 설정에 있어 자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어 음운규칙 자체의 보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방법이 더 경제적인 것 아니라 타당성 있을 것이다.

23) 이 경우는 '돌구다'가 같이 쓰이므로 순수한 예외는 아니다.

'-추'의 경우에도 (31)에서 처럼 3, 4개의 예만이 발견될 따름이다.

(31) 낮추다, 갖추다, 늦추다, 맞추다 (~맞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는 예는 '-히'가 예측되는 경우로 '-히'를 사용하는 경우 /c + hi/의 연속체가 되어 뒤따르는 기음화 규칙에 의해 구개음 [c^h]와 [i]가 연달아 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우'에 대한 논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전설모음이 연달아 오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대신 '-우'를 첨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McCarthy(1986)가 제안한 일종의 '동일음연속체 불가원칙(Obligatory Contour Principle)'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²⁴⁾ 한편 '맞추다'의 경우는 '맞히다'가 병용되고 있으므로 순수한 '-추'의 예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편 '-우'의 경우에는 발견되는 예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발생환경도 음운적으로 자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칙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back][-back]의 동일음 연속체 불가원칙, 즉 OCP에 의해 기본형 '-이' 대신 '-우'가 나타나므로 이를 (33)과 같이 규칙화한다.

(32) 끼우다, 가리우다, 찌우다, 내리우다, 치우다, 비우다, 피우다, 이우다
매우다, 깨우다, 새우다

(33) [CAUS] -> u / $\left[\begin{array}{l} +\text{syll} \\ -\text{back} \end{array} \right] + \underline{\quad}$

한편 '채우다, 세우다, 재우다' 등은 '차(서/자)-이-우-다' 형태의 이중사역형으로 보인다 (이상익 1980, 김영석 1984). 또한 (33)의 규칙이 예측하지 못하는 예외가 하나 발견된다. 즉 '돌우다'의 경우인데 '돌구다'와 병용되고 있으므로 순수한 '-우' 접미법의 예외는 아니다.

이제 이상에서 본 소수의 예나 예외적인 것이 아닌 분포가 넓고 생산적인 예들에 대한 규칙설정을 시도한다. 즉 '-이, -히, -리, -기'의 경우로 '-히, -리, -기'에 대한 규칙은 수동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와 '-히'의 분포는 수동형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수동형의 경우에는 기음화될 수 없는 평 파열음이나 파찰음 뒤에서 '-히'가 쓰이지만 사역형의 경우는 (34가)에서 처럼 '기'으로 끝나는 어간뒤에서는 '-히' 대신 '-이'가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34나)의 평자음 뒤나 (34다)의 접자음 뒤에서 '-히'가 쓰이게 됨은 수동형과 같다. 따라서 이를 규칙

24)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McCarthy(1986)

At the medodic level, adjacent identical elements are prohibited.

화 하면 (35)와 같이된다.

- (34) 가. 먹이다, 죽이다, 삭이다, 썩이다, 녹이다²⁵⁾
 나. 굵히다, 잡히다, 굳히다, 업히다, 닫히다, 맞히다
 다. 밝히다, 앉히다, 굵히다

- (35) [CAUS] → $hi / \left[\begin{array}{l} -cont \\ -tense \\ -back \end{array} \right] + \underline{\quad}$

한편 '-기'의 경우는 수동형과 같은 규칙을 쓸 수 있으며 이 점은 '-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는 수동형과 사역형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 (36) [CAUS/PASS] → $ki / \left\{ \begin{array}{l} +nasa \\ +cons \\ +cont \end{array} \right\} + \underline{\quad}$

(사역형: 감기다, 신기다, 안기다
 웃기다, 씻기다)

(예외: 뜯기다, 말기다)

- (37) [CAUS/PASS] → $li / [+lateral] + \underline{\quad}$

(사역형: 늘리다, 울리다, 늘리다, 말리다
 굴리다, 말리다, 풀리다, 풀리다, 실리다)

따라서 여타조건에 의해 보편 기본형으로 나타나는 '-이'에 대한 규칙도 다음과 같이 하나로 제시된다.²⁶⁾

- (38) [CAUS/PASS] → $i, elsewhere$

즉 위에 기술된 특수 이형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접미사의 형태를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여타조건에 의해 '-이'를 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깨다'의

25) '삭이다, 썩이다, 녹이다'의 경우 비표준어에서 '삭히다, 썩히다, 녹히다'가 쓰이기도 한다.

26) 사역형 '-이'는 그 분포가 다양하고 (예: 붙이다, 보이다, 깎이다, 높이다, 누이다)수동형에 비해서 '-우'가 변이형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별도의 사역형 이형태소 규칙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연성이 결여된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CAUS] \rightarrow i / \left\{ \begin{array}{l} [+syll] \\ [+back] \\ [-cont] \\ [+tense] \end{array} \right\} + \underline{\quad}$$

사역형은 여타조건에 의해 (33)이 (38)을 선행하므로 '-우'를 택하여 '깨우다'를 만들어 낸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역형 접미사의 형태는 수동형에 비해 숫적으로 몇 가지가 더 허용되며 '-ㄱ'으로 끝나는 동사의 사역형과생에서 수동형과는 달리 '-이'를 택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 점을 제외한 '-히, -리'등의 규칙은 하나로 묶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경우도 다른 규칙이 예측하지 못하는 기본형(default)의 경우이므로 역시 여타조건을 사용한 동일한 형태의 규칙이 된다.

3.2.4. '-리'의 음운적 도출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역/수동형 접미사 '-리'의 도출은 대단히 간단하고 예외가 없이 규칙적이다. 또한 '으-불규칙'활용에 의한 '-으(-i)탈락규칙', 'ㄷ-불규칙'활용에 의한 't -> l'변화등은 -li가 아니라 모음 -i에 의해 규칙적용의 환경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와 연관지어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를 가장 보편적인 분포를 보이는 '-이'로 부터 도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li를 -i로 부터 도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번째 방법은 김영기(1974:8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으'불규칙 용언의 기저형에 다음과 같이 -i을 두개 접친 /li/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39) /pulli/	부르(다)
pulli + i	수동형접사 첨가
pull i	으-탈락

즉 기저형에 /li/을 설정함으로써 간단히 올바른 표명형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ㄹ'이 겹쳐서 나타나는 '부르다/불르다, 부르니/불르니'와 같은 표면 교체형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불러도'의 경우에는 '*부러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40) 가. 부르다/불르다, 부르니/불르니
나. 불러도/*부러도

따라서 /li/의 기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기(1974:83)는 다음과 같은 'ㄹ축약'규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

(41) 중첩-ㄹ 축약 (Geminate-l reduction): 수의적
ll -> l / V _____ i & (&=용언 어간 경계)

(42) 가. /pulli + ini/	나. /pulli + əto/	
pullini	pullədo	으-탈락
pulini	---	중첩-르축약
purini	pullədo	l -> r, 파열음 유성화

그러나 만약 '둘다, 말다' 등의 기저형을 /toll-, mall-/로 설정하는 경우, 사역/수동형이 '둘리다, 말리다'로 나타나는 형상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41)의 중첩-르 축약규칙에 의해 *tol-i, *mal-i등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tol-in'들은', mal-in'말은'에서 중첩 '르'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²⁷⁾ 끝으로 모든 '-르'을 /ll/로 설정하는 경우 '뿔(다)'와 같은 겹자음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는 용언은 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CCC, 즉 세자음 연속체(/llh/)를 가정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거꾸로 다음과 같은 '르-중첩'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43) 르-중첩규칙 (l-gemination)

l -> ll / <C>V ___ + V] <caus/pass>

이제 /tol-/ '둘(다)'의 경우 사역형 접사 '-이'의 첨가와 르-중첩규칙에 의해 '둘리다'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고, 모음과 /n/ 사이에서 '르'를 탈락시키는 '르-불규칙활용'에 의해 [toni] '도니?'와 같은 표면형이 무리없이 도출된다.²⁸⁾ 또한 다음과 같은 'ㄷ-불규칙'활용이 개입된 경우에도 파생된 l을 다시 중첩시킴으로써 올바른 표면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ㄷ-불규칙활용 규칙이 르-중첩규칙을 선행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스'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는 '-이' 대신 '-기'가 쓰인다.

(44) 가. /sit/ '실다'

sit-i 수동접사 이형태규칙

sil-i ㄷ-불규칙활용

sil-li 르-중첩

[silli] 실리다

나. /s'is-ki/ '씻기다'

s'it ki 음절말 중화

27) 물론 수이적으로 적용되는 '으-탈락규칙'에 의해 도출되는 [ton], [mal]등의 교체형도 존재한다.

28) [tonik'a] '도니까'의 경우는 기저형이 /tol-inik'a/이므로 별도의 '으-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한편 'ㄹ-중첩' 규칙은 '으-탈락'과 'ㅎ-탈락' 규칙을 뒤따르는 규칙적용 순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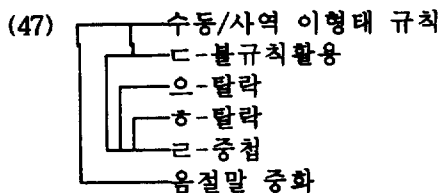
(45) 가. /pul/ + /i/ '불리다'
 pul i 으-탈락
 pull i ㄹ-중첩

나. /t'ulh/ + /i/ '푹리다'
 t'ul i ㅎ-탈락
 t'ull i ㄹ-중첩

한편 여기에서 제시된 'ㄹ-중첩' 규칙 (43)은 이미 소개된 박승윤(1982)의 규칙 (23라)와는 약간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3라)에서는 단순히 모음간의 'ㄹ'이 중첩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43)에서는 수동/사역 파생의 경우는 'ㄹ' 앞의 모음이 단모음인 경우로 국한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는 다음 (46나)와 같이 장모음을 가지고 있는 용언은 수동/사역형 파생이 아닌 일반 활용에서는 절대로 'ㄹ-중첩'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단모음의 용언은 파생과 활용 모두에 'ㄹ-중첩'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46) 가. /u:l-i-ta/ '울리다' -> [ullida]
 나. /u:l-ini/ '우니' -> [u:ni]
 /pu:l-ini/ '(바람이) 부니' -> [pu:ni]
 다. /nal-ita/ '(새가)날으다/날르다' -> [narida]/[nallida]

이제까지 논의된 규칙들을 함께 모아 적용순서 상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9) 'ㄹ'이 중첩되는 경우 새로 생긴 'ㄹ'이 초성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는 범어적으로 선호되는 음절의 CVC구조를 충족시키려는 일종의 심리적 현상으로 보인다. 즉 초성의 빈자리를 채우는 초성 생성(onset creation) 현상이다.

3.3. 부사파생

3.3.1. '-이, -히, -리'에 의한 파생

부사파생의 유형은 비교적 단순하여 주로 '-이, -히, -리'의 세가지 어휘적 이형태소가 존재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통사적 접사 '-계'를 사용한다. 또한 어휘적 파생접사 '이, 히, 리'의 분포유형은 사역/수동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 세가지 부사파생의 형성과정은 의미적인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사역/수동의 경우와 다르다. 예를 들어 송철의(1989:187-193)는 다음과 같이 부사파생 과정이 긍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형성되고 부정적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게된다는 관찰을 하였다. 30)

(48) 길이/*짧이, 높이/*낮이, 깊이/*얕이, 빨리/*느리, 많이/(?)적이31)

그러나 이 세가지 이형태소의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적 고려와 함께 음운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여과장치인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이형태소 규칙의 설정이 가능할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역/수동의 경우와 같이 분포가 가장 보편적인 '-이'를 기본형으로 보고 대부분의 경우 '-이'를 붙여 부사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형태규칙 설정은 수동/사역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즉 '-리'와 '-히'에 대한 이형태규칙을 먼저 설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기본형 '-이'를 쓰도록 하는데, '-리'의 경우에는 기본형 '-이'가 '-르'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 올 때 '르'를 중첩시키는 '르-중첩' 규칙을 적용시킴으로써 올바른 형태를 도출하도록 한다. '-히'의 경우에는 기저형 '-이'가 '-하(다)'로 끝나는 여기에 붙어 파생된다.

우선 '-리'가 붙는 경우에는 '르'이나 '르'로 끝나는 여기에 기저형 '-이'가 붙어 '르-중첩(l-doubling)'과 '으-탈락' 규칙의 적용을 받아 '-리'로 나타난다.32) (즉

30) 이는 명사파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다, 밝다'등에서 '키 (또는 '크기'), 밝기'등은 형성되지만 '작기, 어둡기'등은 보통의 중립적 용법을 위해서는 만들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키 (크기), 밝기'등은 일반적인 척도의 기준으로 쓰이나 '작기, 어둡기'등은 이미 지칭하는 대상이 매우 작거나,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쓰인다. 이는 의문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방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명암의 정도를 묻는 것이지만 '그 방의 어둡기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이미 지칭하는 대상이 너무 어둡다는 뜻을 전제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언어나 일어나는 범어적인 것으로 영어의 예에서도 bright, high, deep, wide등에서 brightness, height, depth, width등이 파생되어 중립적인 용어로 쓰이지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darkness, lowness, shallowness, narrowness는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31) '멀리/가까이'의 경우 단순한 거리감의 척도를 나타내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무거이/가벼이'의 예는 또 다른 예외적 현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한편 '*넓이/*좁이, *두꺼이/*얇이, *굵이/*가늘이, *키/*작이'등은 척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부사파생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예이다.

l(i) + _____의 환경에서 '-리'가 나타난다.)

- (49) 멀 + 이 -> 멀리
- 너르 + 이 -> 널리
- 다르 + 이 -> 달리
- 게으르 + 이 -> 게을리
- 빠르 + 이 -> 빨리

한편 두 가지 규칙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경우 규칙순으로 보면 '으-탈락'이 'ㄹ-중첩'에 선행되어야 한다.

- (50) /tali + i/
- | | |
|----|----------------|
| ∅ | i-탈락(deletion) |
| ll | l-중첩(doubling) |
- [talli]

한편 'ㄹ'이나 '르'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에는 '-이'나 '-히'가 붙는데, '-히'가 붙는 경우는 기저형 '-이'가 '-하(다)'로 끝나는 여기에 붙어 'a-탈락' 규칙을 통해 파생되는데 특히 (51가)에서 처럼 한자어에 '-하(다)'가 붙는 경우는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순수 우리말인 경우에도 (51나)와 같이 비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한자어와 같이 '-히'를 사용한다. 그러나 기타의 예에서는 (51다)와 같이 대부분 그냥 '-이'를 사용하게 된다.³³⁾

- (51) 가. 분명히, 명백히, 과감히, 우연히, 완전히, 확실히, 황급히, 냉정히
 나. 사뿐히, 아련히
 다. 깨끗이, 번듯이, 넉넉히, 따듯히, 뿌듯히, 넘죽히, 뼈죽히³⁴⁾

순수 우리말에서의 비음에 의한 '-히'의 선택은 중첩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다음의 (52가)에서 처럼 형용사가 어간말 비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형 '-이'를 선택한다. (즉 어기의 끝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가 붙는다.) 그러나 비음이 있는 경우는 (52나) 처럼 '-히'가 붙게 된다.

32) '멀다'에서 '멀리'가 파생되는 것과는 달리 '길다'에서는 '*길리'가 파생되지 않으므로 일종의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척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부사화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면에서 보면 '멀리'의 경우를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한편 '길다'의 경우 'ㄹ'리 중첩되지 않은 '길이' 또는 '길게'가 대신 쓰인다.

33) 이 경우는 단순한 'a-탈락' 보다 좀 더 복잡한 '-ha-' 전체를 삭제하는 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4) '반드시'는 공식적으로 '반듯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 (52) 가. 되되이, 새새이, 날날이, 살살이, 알알이, 길길이
 나. 곱곱히, 꼼꼼히, 천천히, 뻔뻔히

한자어의 경우에는 분포적으로 '-이' 보다 오히려 '-히'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특이하다. 즉 순수 우리말 어휘의 경우와는 반대로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말 자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히'를 붙이게 된다. 그러나 어간말 비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보여진 것과 같은 예외를 허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히'의 보편성은 우리 국어의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자어 어간과 순수 우리말 부사화 접미사에 대한 구별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53) 가. 누누히, 서서히, 일일히, 도도히
 나. 선선히, 순순히, 만만히 (예외: 간간이, 번번이)
 다. 감감히, 당당히, 양양히 (예외: 참참이)

따라서 기본형 '-이'의 사용은 순수 우리말의 사용에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위의 (51다)와 같은 예 뿐 아니라 다음에 보여지는 'ㅂ-불규칙' 용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어말 'ㅂ'의 뒤에 '-이'가 붙어 'w → 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 | | | |
|------|-------|----|------|
| (54) | 곱 + 이 | -> | 고이 |
| | 너그럽 | | 너그러이 |
| | 반갑 | | 반가이 |
| | 새롭 | | 새로이 |

이제까지 논의된 '-이'와 '-히' 두 부사파생접사의 분포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55) [ADV] -> hi / <[+nasal]>]_{SK<K>} + _____
 [ADV] -> i, elsewhere (주: SK = 한자어(Sino-Korean),
 K = 순수 우리말(Pure Korean))

이 여타조건은 '-히'가 나타나는 조건을 순수 우리말 어휘인 경우는 어말에 비음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거나 한자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의 경우에는 기본형 '-이'가 쓰인다.

3.3.2. 예외현상: '게'

이제까지 논의된 '-이'의 기본성(default)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존재한다. 우선 한자어의 중첩어가 아닌 경우에,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뒤에서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해 '-이' 대신 '게'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어 '바쁘

(다)'와 같은 경우 모음층들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 있던 어간의 모음을 삭제한 '바빠'와 '-게'를 첨가한 '바쁘게'가 모두 쓰이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56) *V + i

또한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파생 척도명사의 어기가 되는 형용사는 명사와의 구분을 위해 '-히'가 붙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앞절에서 논의된 '동어의 기피원칙'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다.)

(57) 길게 (cf. 길이), 낮게, 넓게 (cf. 널리), 높게, 두껍게, 얇게, 크게, 굵게, 짧게

끝으로, '-ㅎ'으로 끝나는 색채 형용사의 경우에도 '-이'나 '-히'가 붙지 못한다.

(58) 노랑-게, 빨강-게, 하양-게, 까맣-게

이 현상은 '-히'가 붙는 경우 어간말 '-ㅎ'으로 인하여 'ㅎ'이 연달아 오는 결과를 막기 위한 일종의 '동일 요소 인접금지(Obligatory Contour Principle)'로 보거나 (McCarthy 1986), '-이'가 음으로써 모음간의 'ㅎ'가 탈락해서 다시 모음층들이 생기는 결과를 막기 위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무튼 '-이, -히'등이 올 수 없는 모든 경우에 '-게'가 대신 사용된다.

4. 통시적 어휘화과정의 주요 음운현상

이제까지 주로 공시적인 면에서 주요 어휘적 파생현상을 분석하고 개선된 설명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많은 부분,, 특히 예외적인 몇가지 예들은 공시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통시적인 면에서 설명해야할 것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시적인 논의는 이 글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기술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특징적인 공시적 음운현상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에 보여진 것과 같은 자음약화 현상이 두드러 진다. 즉 파열음이 주로 모음 사이에서 마찰음으로 바뀌고 이 마찰음은 활음으로 변했다가 결국에는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는 우리 국어의 음운사를 보면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기문 1972)

(59) 자음약화: p > β > w > ∅ 예: 더뵈 > 더위,

둘째로 언급되는 현상은 기음화(aspiration)이다. 즉 기음을 야기시키는 'ㅎ'이 파

열음에 선행할 때 두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음화된 격음(aspirated sound)을 만들어 낸 현상이다.

(60) 기음화: 숨+브- > 슬프

끝으로 음절과 관련된 규칙을 들 수 있는데 범어적으로 선호되는 자음과 모음이 서로 번갈아 오는 CV나 CVC 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상이다. 여기에는 가장 흔한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 즉 [(C)VC]_σ [V(C)]_σ 구조를 [CV]_σ[CV(C)]_σ로 전환하는 현상이다.

(61) 재음절화

$$[(C)VC]_{\sigma} [V(C)]_{\sigma} > [(C)V]_{\sigma} [CV(C)]_{\sigma}$$

예: 열음 > 어름, 열음 > 여름, 어렵+살+이 > 어렵사리

이러한 예는 이밖에도 ‘바가지, 이파리, 무르팍, 기다랗다’ 등 그 수효가 아주 많다.

음절과 관련된 또 하나의 현상은 통시적인 생산성 면에도 그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로 어말 ‘ㄹ’이 설정음(coronal)인 ‘ㄷ, ㄴ, ㄱ, ㅈ’ 등이 뒤따르는 경우 탈락하는 현상이다.

(62) ㄹ-탈락

$$l > \emptyset / ____ + [+coronal]$$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통시적으로 형성된 다음과 같은 소수의 경우가 해당된다.

(63) 가. 아드님, 따님, 하느님 (비교: 달님, 별님)

나. 바느질 (비교: 술질, 저울질)

다. 부삽 (비교: 들삽)

라. 기다랗다 (비교: 길다랗다)

마. 둥그스름하다 (비교: 밭살스럽다)

즉 (63)의 예시된 것들은 통시적으로 화석화된(fossilized) 사용빈도가 많은 예들이며, 반면에 괄호안에 비교를 위하여 제시된 예는 공시적으로 형성된 것들로 ‘ㄹ-탈락’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6. 결론

이제까지 파생어 형성과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음운현상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파생어 형성이 형태적 정보 이외에 음운적인 정보도 종종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주로 공식적인 측면에서 접두사/접미사에 의한 파생, 영접사에 의한 파생, 음운교체에 의한 파생 등 여러 면의 자료를 고루 다루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내부적 파생, 즉 중첩현상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어 놓았다. 또한 통시적으로 굳어진 현상 등은 몇가지 대표적인 것 만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다음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89. 「국어 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계근. 196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대 논문집」 3.
- . 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대 논문집」 4, 23-63.
- . 1978.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인천교대논문집」 13.
- 김석득. 1971. 「국어구조론-한국어의 형태통사론 구조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 홍용선. 1968. 「종합국어사전」, 어문각.
- 김영기 (Kim-Renaud, Young-Key).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김영석 (Kim, Young-Seok). 1984. *Aspect of Korean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김영희. 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1, 2711-311.
- 김완진. 1971ㄱ.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 . 1971ㄴ.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 김진우 (Kim, Chin-W.) 1973. Adjustment rules in phonology. In M. J. Kenstowicz and C. W. Kisseberth (eds.) *Issues in Phonological Theory*. 130-144.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8. 「국어 어문 규정집」
- 박승윤 (Bak, Sung Yun). 1982. Causativization in Korean, 「언어」 7.2, 322-342.
- 성광수. 1988. 국어의 단어와 조어. 「주시경학보」 1.
- 송철외. 1989.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서정수. 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 174, 367-400.
- 손형숙 (Sohn, Hyang-Sook). 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신기철, 신용철 편저. 1989. 「새 우리말 큰사전」 (8차 수정 증보판), 삼성출판사.
- 신창순. 1975. 국어 조사의 연구-그 분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7, 1-21.
- 심재기. 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안상철 (Ahn, Sang-Cheol).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_____. 1989. On the Derivation of Causative/Passive Suffixes in Korean. 「이혜숙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139-189. 한신문화사.
- _____. 1990. 생성형태론의 발전과 현안문제. 「주시경학보」 5, 7-49.
- _____. 1991. *An Introduction to Korean Phonology*. 미출판 교재.
- 유재원. 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 이기문. 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탑출판사, 1978)
- _____. 1978.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 1978.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상익. 1970. 국어의 사동, 피동구문 연구. 「국어연구」 26.
- _____. 1980. 사동, 피동 어간형성 접미사에 대한 다각적 고찰. 「어문논집」 (고대) 21, 121-138.
- 이승녕. 1961. 「국어조어논고」, 을유문화사.
- 임홍빈. 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83-104.
- 조의연 (Cho, Euiyon). 1986. On the morphology of morphological causatives in Korean: an argument against Lieber's morpheme-based lexicon.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16.2, 27-43.
- 채 완. 1986. 「국어 어순의 연구」, 탑출판사.
- 최현배. 1971. (초판 1937) 「우리말본」, 정음사.
- 한정길 (Han, Jung-Kill). 1984. *Analyse des Constructions des Verbes Causatifs en Coréen Contemporai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é de Paris VII.
- 허 응. 1965. 「국어 음운학」, 정음사.
- _____. 1975. 「우리 옛말본」, 정음사.
- Allen, Margaret.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ronoff, Mark.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Bauer, Laurie. 1983. *English Word 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zdar, Gerald, Ewan Kelen, Geoffrey Pullum, and Ivan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asil Blackwell.
- Iverson, Gregory K. 1983. Korean s. *Journal of Phonetics* 11, 191-200.
- Jenson, John T. 1990.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Kiparsky, Paul. Abstractness, opacity, and global rul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Also in Steven Anderson and Paul Kiparsky (eds.) *Three Dimensions of Linguistic Theory*, 93-106.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_____. 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The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_____. 1983. Word-formation and the lexicon. In F. Ingemann (ed.) *Proceedings of the 1982 Mid-American Linguistics Conference*. University of Kansas.
- _____. 1985. Some consequences of lexical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2, 85-138.
- Lieber, Rochelle. 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Doctoral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Marchand, Hans.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2nd edition) München: C.H.Beck.
- Martin, Samuel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McCarthy, John. 1986. OCP effects: Gemination and antigemination. *Linguistic Inquiry* 17, 207-63.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86. Prosodic morphology.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ohanan, K.P. 1982, *Lexic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Pesetsky, David. 1985. Morphology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16.
- Scalise, Sergio.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 Selkirk, Elisabeth.O.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IT press.
- Shibatani, Masayosi and T. Kakeyama. 1988. Word formation in a modular theory of grammar: a case of postsyntactic compounding in Japanese. *Language* 64, 451-484.
- Spencer, Andrew. 1991. *Morphological Theory*. London: Basil Blackwell.